

# 전남도, 순천시 올해 첫 여성 일자리 박람회

동부권 8개 시군 115개 기업 참여해 205명 채용 목표

인공지능 활용한 맞춤형 직업 탐색·일자리 체험 등 호응

전라남도는 21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내일(job)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올해 첫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부권 115개 기업이 참여해 205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권향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해숙 순천YWCA 회장, 김현미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구인기업, 구직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엔 순천을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8개 시군 115개 기업이 참여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설계와 지역 특색 일자리를 중점 소개하는 특화형

박람회로 운영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 탐색, 목공·애니메이션·반려동물 분야 등 특색 있는 일자리 체험이 이뤄져 참석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에 거주하는 김 모(조례동·41) 씨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 바로 달려왔다"며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말 유익했고 이번에는 꼭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많은 여성이 생애 어느 단계에 있는 다양한 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이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힘써 고용 기회를 넓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석자들과 포포먼스를 하고 있다.

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매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600여 구인업체를 발굴해 추진, 352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순천을 시작으로 6월 18일 여수 흥국체육관, 9월 2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염선호 기자



## 광주본부세관장, K-뷰티 수출기업 현장 방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품산업단지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법인 ㈜바이오에프디앤씨를 방문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앤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화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중국시장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본부세관장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고 ㈜바이오에프디앤씨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임채일 기자

## 기업도시 세계 감면으로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기대

전남도 건의로 재산세 분리과세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 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재



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

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 전남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 지원

6월 20일까지 접수... 병해충 특약 가입 시 7종 피해 보장

벼 침수피해 예방위한 배수로정비·질소질비료 줄이기 당부

전라남도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6월 20일까지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벼멸구, 도열병 등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1ha당 약 54만 원으로, 농업인은 10%인 5만 4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유기 인증 친환경 필지는 100%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6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호우에 따른 벼 침수피해 예방과 쓰러짐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질소질비료를 적정한 양으로 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재해에 대비, 농업소득 보장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벼 재배농가는 가입기한에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태풍, 벼멸구 등으로 벼 피해를 입은 3만 6천 농가에서 1천10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우중곤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6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기업지원 정책이다. 현재까지 400여 개사가 선정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총 31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프리(Pre)-명품강소기업

## 광주시, "성장 유망 '명품강소기업' 찾는다"

명품강소기업 18곳·예비기업 13곳 등 31개사 선정

(13개사) ▲명품강소기업(18개사)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제7기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및 제11기 명품강소기업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연장 포기·탈락·졸업한 기업의 결원분을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선정 조건은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모집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7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평가는 기술 수준, 성장전략, 연구개발

(R&D) 혁신역량, 이에스지(ESG) 경영준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이에스지(ESG) 진단·상담을 받았거나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 우대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고급화까지 다양한 맞춤형 협업·자율 지원이 제공되며, 광주시 경영안정자금(3억원→5억원 상향) 등 금융·세제·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혁신 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062-602-722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종팔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